

점성Q | '시크릿 가든' 빛낸 개성과 조연들

독설 뿜는 박준금, 재벌 사모님 포스 짱!



김성오



장서원

■ "잔재미는 우리의 것" 감초 3인방

80년대 스타 박준금 까칠한 변신 갈채
폰수 김비서 김성오 유쾌한 매력 발산
사랑의 오작고 장서원 여성팬들 술렁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드라마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어지러진 잔재미를 담은 것은 주연들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연들의 사이 사이에 포진해 극적 재미를 부여하는 조연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는 주원(현빈)이나 길라임(하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주원엄마 역으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박준금부터 '김비서' 김성오, '돈 잘 버는 주원'을 연발하는 스타트맨 장서원 등 조연 연기자들이 적재적소에 포진해 이야기에 재미를 보태고 있다.

청춘스타에서 연기파 조연 변신 박준금

'시크릿 가든'이 내세운 조연진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박준금이다. 80년대 귀여운 외모의 청춘스타로 인기를 끌었던 박준금은 그동안 꾸준히 일일극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시크릿 가든'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오드리 햅번을 연상케 하는 얹헤어 스타일에 매혹 눈이 부실 정도로 차려입은 사치스러운 옷차림으로 등장하는 박준금은 입만 열면 독설을 뿜어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에서 화려한 치장의 재

벌가 사모님은 결코 낮은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시크릿 가든'에서 박준금이 보여주는 '포스'는 기존 캐릭터들을 압도한다.

워낙 말과 행동이 독하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톡톡히 받고 있지만, 드라마 '폐인'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따뜻한 연기자로 통한다.

실제로 박준금은 최근 시청자 게시판에 "대본을 받아주고 라임에게 퍼붓는 장면을 연습하다 몇 번이나 대본을 뒀었다. 가슴이 아파서"라며 "평평 우는 라임이 모습을 무대 뒤에서 보며 함께 울었다"는 글을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폰수 비서' 김성오·액션스쿨 No.2 장서원

폰수기 많은 김비서 역을 능청스럽게 소화하는 김성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사장님' 현빈에게 매달리는 모습으로 드라마의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한다.

김성오는 지난해 한국영화 최다 관객을 동원한 '아저씨'에서 악랄한 악당을 연기해 관객에게도 각인됐던 연기자. '시크릿 가든'에서는 영화와 전혀 다른 코믹한 캐릭터로 극과 극 매력을 과시하며 팬 층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현빈과 하지원 사이를 잇는 '오작고'로 나선 액션스쿨의 2인자 황정환 역의 장서원도 여성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장서원은 두 주인공의 사랑을 도와주는 유일한 인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는 데다, 이야기가 심각하게 흐르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해 분위기를 풀어주는 감초 역할을 도맡아 관심을 더하고 있다.



하지원과 현빈의 사랑을 갈라놓는 엄마 분홍 역으로 드라마 인기에 큰 몫을 하고있는 박준금. 사진제공 | SBS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 해제로 연예계 활기

매일 밤 12시면 전국에서 울리던 사이렌 소리.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꿨다. 자칫 단속에 걸리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꼼짝없이 경찰서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이다. 겨울밤, 한 잔 걸친 끝에 호기로 '2차' '3차'를 부르지만 밤 10시 30분이면 소숫집의 닫힌 문을 견어차고 나와야 했다.

1982년 오늘, 마침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취락지구와 전방 접적지역을 뺀 50개시 139개군 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1945년 미 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9월8일부터 무려 37년 동안 사람들은 밤 12시 이후엔 발길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었다.

이 조치를 가장 반긴 사람은 연예인들이었다.

1976년 국무총리 지침에 따라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다방과 과자점 등의 영업마감 시간이 겨울철은 밤 10시30분, 여름철은 밤 11시로 제한됐다. 하지만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로 모든 야간업소는 재량에 따라 자정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야간업소 출연에 수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던 연예인들에게 당연히 크게 환영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인순이의 매니저였던 김호성 씨는 야간 통행금지 방침이 알려진 1981년 말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은 두 세 군데 밖에 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네 군데 이상 뛸 수 있다"면서 "수입이 배는 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순이

늘었다.

야간 통행금지가 아직 사라지기 전에는 이른바 '골든타임대'인 밤 8시에서 10시 사이 톱스타급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왔지만 그 영업시간대가 늘어나면서 경쟁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늘어난 영업시간만큼 연예인을 찾는 수요가 늘어 무명예가 갑자기 톱스타급이 아닌 일반 연예인들에 대한 섭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 아닌 우려도 나왔다.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반긴 곳은 또 있다. 극장이었다.

통금 해제 이전, 5~6회 상영에 그쳐야 했던 극장들은 심야 상영으로 횟수를 1회 늘렸다. 심야극장도 이 시절 생겨났다. 그해 3월 서울극장이 '미드나이트 스페셜'을 마련해 토요일 자정부터 2시간 가량 영화를 상영했다. 당시 서울시내 극장 79개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관람하고 있었다.

1980년 12월 컬러TV 방송 시작에 따른 방송 외화에 밀려 관객이 대폭 줄었고 검열 기준 등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 상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극악무도한 검투노예장’ 도대체 넌 누구냐?

OCN 드라마 '야차' 대마도주 한태인
신인답지않은 악랄한 혼신 연기 호평

“‘야차’의 검투노예장 대마도주는 누구?”

OCN 금요드라마 '야차'(극본 정형수·구동희, 연출 김홍선)에 등장한 극악무도한 대마도주 한태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첫 회부터 3.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 대박 드라마 탄생을 알린 '야차'는 지난해 12월31일 국내 드라마에서 시도되

지 않았던 검투 노예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백복(조동희)과 박포(박원상)가 대마도주(한태인·사진)의 노예가 돼 검투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태인은 극악무도한 대마도주의 악랄함을 온 몸으로 연기해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연극과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신예였던 한태인은 '야차'와 지상파의 사극에 동시 캐스팅됐지만 정형수·구동희 작가의 세련되고 탄탄한 대본에 끌려 '야차'를 선택했다. '야차'에서 전 대사를 일본어로 소화중

인 그는 촬영 현장에 늘 일본어 선생님과 함께 다닐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한태인은 “그 동안 일본어 대사를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5회부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야차’가 케이블 드라마의 한계를 뛰어 넘어 순창하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갈수록 나아지는 연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4회까지 방송된 '야차'는 첫 방송 이후 케이블TV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유지하며 케이블계 명품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2010-208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어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교보다이어트 무배당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경신하여 경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

편지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부부요가

누워서 빛는 이효리 복근 구하라 허리



1. 편안하게 누워서 양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린다.

주부라서 행복할 때가 있다. 특히 남편 월급도 내 돈, 내 월급도 내 돈일 때, 혹은 아이가 공부 잘해서 기특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시집 안 간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사는 노처녀 친구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가정이라는 든든한 테두리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확실하다.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만큼 남편의 애정 어린 미소와 손길은 존재하며 그는 결코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세상은 나를 속이거나 배신할지 몰라도 남편과 자식은 늘 한결같이 내 곁에 있다. 일과 비즈니스에 성공한 여성들을 일컬어 '슈퍼우먼'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주부는 슈퍼우먼보다 소박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2. 호흡을 내뿜으면서 양 다리를 45도로 낮춘다. 20초 정지.



3. 양 다리를 최대한 내리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초 정지, 5회 반복.

※주의:
1. 3번 자세에서 양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허리 밑에 쿠션이나 담요 등을 깔고 수련하면 더욱 쉽다.
2. 4번과 5번 자세에서 양 다리와 고개는 반대방향으로 비틀어준다.



4. 1번 자세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양 다리는 모두 왼쪽으로 넘긴다. 이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5. 반대방향으로 동일하게 수련한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글·동작 최경아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원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